

학회장후보 출마 소견서

한국경영과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경영과학회 차차기 학회장 후보로 추천 받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모정훈입니다. 1976년 창립된 이후 약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경영과학회에 학회장 후보로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이었던 93년도에 처음으로 경영과학회와 인연을 맺었고 경영과학회 이사, 학술부회장, 산학부회장등을 역임하면서 학회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학회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력이나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젊은 학문 후속세대의 영입에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신진 연구자와 젊은 교수님들이 학회를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학회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30-40대의 젊은 연구자와 교수님들을 학회의 이사진으로 영입하여 젊은 연구자들에게 학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유망한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초청하여 학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신진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며, 학회가 연구자들 간의 협력과 지식 공유의 중심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내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경력 개발과 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얻고, 그들의 연구가 학회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과학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경영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학회에서는 전통적인 경영과학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경영과학 방법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촉진하고, 새로운 연구 및 혁신적인 접근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학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영과학은 태생적으로 산업과 응용되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현재 산학포럼등의 활동을 확대하여 경영과학회와 산업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미력이나마 학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의견을 듣고, 회원이 즐거워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학회장 후보 모정훈